

# 가나자와 성 돌담 둘러보기

가나자와 성은 '돌담 박물관'. 돌담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축조되었습니다. 돌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보시지 않을까요?

## 돌담 걷기 코스



## 주요 축조 기법

### 자연석 쌓기



자연의 돌과 켄 돌을 이용하여 쌓는 기법으로 히가시노마루 주변 등 오래된 시기의 돌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### 가공석 쌓기



모양을 다듬은 가공석을 이용하여 쌓는 기법으로 니노마루 등의 성곽 외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### 절단석 쌓기



켄 돌을 가공해서 틈새 없이 쌓는 기법으로 출입구 등 중요한 부분의 돌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## 돌담 둘러보기 코스

- 성안쪽 루트  
①~⑩ 약1.5km
- 성내외 연락 루트  
① 약0.4km
- 성 바깥 둘레 루트  
①~③ 약2.1km

# 가나자와 성 돌담 둘러보기



## 1 이시카와몬 돌담

이 돌담은 오른쪽과 왼쪽의 축조 기법이 다릅니다. 오른쪽은 '절단석 쌓기', 왼쪽은 '가공석 쌓기'입니다. 같은 장소에 다른 기법이 이용된 보기 드문 예로 메이와 2년(1765년)에 보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

## 8 산짓켄나가야 돌담

이 돌담은 '절단석 쌓기'라는 기법으로 축조되었습니다. 표면의 테두리만 깔끔하게 다듬어 내부를 거친 상태로 두는 기법이 이용되었습니다.



## 2 내보리 돌담

이 내해자는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히시야구라와 고깃켄나가야 등도 함께 복원되었습니다. 간에이 8년(1631년)의 큰 화재 후 니노마루를 지키는 해자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.



## 9 구로가네몬 돌담

'절단석 쌓기' 기법은 성의 중요한 부분에 이용되었습니다. 혼마루로 가는 입구인 이 철문의 돌담에도 '절단석 쌓기'가 이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돌 표면을 다각형으로 가공한 뛰어난 디자인으로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.



## 3 히시야구라·고깃켄나가야·하시즈메몬 쓰즈키야구라 돌담

여기에서 보이는 산노마루측이 '가공석 쌓기', 뒤쪽 니노마루측이 '절단석 쌓기'입니다. '가공석 쌓기'의 대부분은 성곽의 바깥쪽 등에, '절단석 쌓기'는 출입구 등 중요한 곳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.



## 10 히가시노마루 북쪽 돌담

이 돌담은 성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법이 이용되었으며 가나자와 성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안되는 귀중한 것입니다. 자연석이나 깎은 돌을 완만한 경사에서 쌓아 올린 '자연석 쌓기' 기법이 이용되었습니다.



## 4 니노마루 북쪽 돌담

이 부근의 돌담은 모양과 크기를 맞춰 축조되었습니다. '가공석 쌓기'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. 가가번의 돌담 축조 장인 고토 히코사부로는 '가나자와 성내에서도 손에 꼽힐만한 돌담'이라고 극찬했습니다.



## 1 교쿠센인마루 정원과 닿아 있는 돌담군

교쿠센인마루와 닿아 있는 경사면 일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축조한 '절단석 쌓기(시키시 단자쿠즈메)' 돌담을 볼 수 있습니다. 돌담의 높이와 방향, 축조 기법에서 세부 가공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표정을 지닌 이 돌담군은 교쿠센인마루 정원의 중요한 경관 요소였다고 생각됩니다.



## 5 도바시몬 돌담

이 돌담은 '절단석 쌓기' 기법으로 축조되었으며 도바시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. 돌담에 이용된 육각형 돌 (귀갑석)은 물과 가까운 저북이를 표현한 것으로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습니다.



## 1 교쿠센인마루 네즈미타몬 주변의 돌담

이 부근은 교쿠센인마루와 가나야테마루(현재 오야마 신사 경내)를 연결하는 목교가 놓여 있던 곳입니다. 강에서 채취한 돌을 쌓아 보호했으며, 해자 계랑에서 가장 모퉁이 목교 앞 부분(사진 창고)으로 그곳에 교각이 서 있었습니다. 돌담은 계랑 상부에 돌담을 두르는 '히치마키 돌담'으로 축조되었으며, 네즈미타몬의 동문 부분은 메이지 시대에 덧쌓았습니다.

네즈미타몬과 목교 (가나자와대학 부속도서관소장)



## 6 스키야시키 돌담

돌 표면을 직사각형 '절단석 쌓기'로 축조했으며 기호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돌담은 간분시대에 보수된 것입니다. 작입 분담 등을 나타내기 위해 기호가 새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⊗ 표시와田 표시 등의 기호를 찾아보세요.



## 2 오테보리 돌담

해자 주변에 있는 잡석을 쌓아 올린 이 돌담은 가나자와성 초기(게이초 시기)의 돌담입니다. 이 시기에 오사카에서 가호쿠 고개를 거쳐 혼마루에 이르는 오테시지 길의 요소가 돌담으로 견고하게 방비되었습니다. 상단의 돌담은 오사카만타이의 돌담으로 커다란 돌을 쌓 넣은 수법이 특징입니다. 간에이 11년 (1799년) 지진으로 무너져 이듬해 수축하였습니다.

에도시대후기의 오사카몬과 오테보리 (요코야마타카야기 집 창고)



## 7 이누이 망루 돌담

이 돌담은 '가공석 쌓기' 기법이 사용되었으나, 돌 틈새에 평평한 돌을 끼워 넣어 '절단석 쌓기'처럼 보이는 기법으로 축조되었습니다.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돌은 빠져 버렸지만 당시의 정교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## 3 히가시노마루 히가시멘 돌담

가나자와성에서 본격적으로 돌담 축조가 시작된 분로쿠 원년 (1592년) 에 조성된 성내에서 가장 오래된 높은 돌담입니다. 최상단 부분 6m는 소단을 설치하여 쌓아 올렸으며, 돌담의 총 높이는 21m에 달하여 분로쿠 시기의 돌담으로서의 일반 유수의 규모를 자랑하는 '자연석 쌓기' 돌담입니다.